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9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5월 8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최저임금 1만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 지금 당장!

5.1 노동절에 모인 노동자의 목소리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전과 충북에서도 노동절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노동존중 사회로 완전히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노동절대회 참가자들은 절박한 요구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으로 모았고, 지금 당장!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

올해 노동절은 여느해와 다르게 노동자들의 공세적인 요구를 실현해내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동안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방어적인 투쟁을 전개했다면, 촛불투쟁을 거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공세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들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투쟁을 전개했다. 더군다나 이 요구들을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촛불 시민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 정치권을 향해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였다.

새로운 정권을 상대로한 100일 투쟁!

이제 9일 대선이 치러지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새로운 정권이 촛불투쟁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 정권 출범 초기의 투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부의 중요 과제인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 기간에 복수노조법 창구단일화 폐기를 위한 투쟁이 집중적으로 벌어져야 한다. 노동현장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출 수 있도록 새 정권을 향한 투쟁을 준비하자.



수석부지부장 8개월만에 지부 품으로

성세경 수석부지부장이 8개월 만에 돌아왔다. 작년 8월 31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모든 형량을 꼬박 채우고 5월 2일 새벽 5시에 가족과 동지들 곁으로 돌아왔다.

수석부지부장은 정리해고와 임금체불로 물의를 빚은 피엘에이 자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한국타이어 민주노조 사수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구속됐다. 자본의 탄압에 맨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조금의 꼬투리만 잡혀도 혹독한 법의 처벌을 받는 현실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석부지부장 동지의 구속 이후 피엘에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한국타이어 자본의 부당한 노조 차별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소중한 성과가 있었다.

* 이번주 일정 *

■ 지부 선전전

5/8(월) 13:30 충북 경충 앞

■ 지부 5차 교섭

5/11(목) 14:00 보쉬

■ 5.18민중항쟁 37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5/13(토) 15:00 광주 5.18광장